한발 더 다가선 비핵화… 北·美 회담에도 긍정적 영향

韓·日·中 정상회담 성과는

文 대통령, 아베 이어 리커창과 회담
日-경제·문화·인적교류 협력 강화
中-관계발전 혜택 누리게 최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하고로모노마'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손 모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차 9일 하루 일정으로 일본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아베 총리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을 맞아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실질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리 총리와의 회담에선 양국 국민들이 한·중 관계 발전의 성과를 체감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번째로,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이어 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본격적인 회담을 하기전 모두발언에서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익한 논의를 한 데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특히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 이번 정상회의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으로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와 아베 총리가 합의했던 셔틀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셔틀외교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인 올해를 한일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양국 공동 대응과제 ▲양국 기업의 제3국 진출 ▲에너지·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을 포함한 양국 간 인적교류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간다는데 공감했다. 2년간 미뤄온 한일 어업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는 일·한 간 파트너십 20주년이라는 아주 기념할만한 해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강화했으면 한다"며 "새로운 분야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문 대통령과 함께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회담을 마친 후 총리 관저에 마련된 대식당에서 늦은 오찬을 함께 했다. 아베 총리는 오찬이 끝난 후 문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했다.

오찬을 끝낸 문 대통령은 자리를 옮겨 리커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一回生, 二回熟 三回老朋友(일회생, 이회숙, 삼회노붕우)'라는 중국 글귀를 인용하며 "오늘 단독 회담으로만 세번째다. 세 번이나 뵙게 돼 편안하면서 오랜 친구 같이 느껴진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고 다시 정상궤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던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리 총리도 "우린 세 차례 만났으니 옆 친구가 됐다"며 "옆 친구 사이도 더 자주 만나면 관계는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전한 관계를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과 중국의 두 정상은 내달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센터는 양국 국민들의 공통 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환경협력을 총괄하며 미세먼지 대응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나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에도 중국측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美 트럼프,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에

재계, 이란 무역 줄어들까 '울상'

원유 등 제재 예상에 대책마련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국내 재계도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아직 구체적인 경제제재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원유, 금융 등에서 제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중동 정세가 악화할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다양한 산업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미국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고, 업계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핵협정 파기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것은 정유업계다.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당장 원유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 하락과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비 부담으로 실적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또다른 악재가 등장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것은 핵협정 탈퇴이지 경제제재가 아니다"라면서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볼 여지가 있고, 설령 제재가 재개되더라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했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에 차를 판매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즉각적인 영향은 없으나 제재 재개 여부 등 향후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제 막 핵협정 탈퇴를 공식화한 것이고, 구체적인 제재 등 방향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핵협정 이전에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했던 때에 대외적으로 이란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2015년 핵협정을 계기로 대(對) 이란 제재가 풀린 뒤부터는 수출과 반조립제품(CKD) 판매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이란에서 사업을 이어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제재 해제 이후 완성차업체의 이란 수출 규모는 2015년 1만4716대, 2016년 2만793대, 2017년 1만4779대다.

이와 별도로 CKD 생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차가 1천200여대, 기아차가 2만6000여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핵협정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아 당분간은 사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IT·전자전기 업계에서도 이란 현지 법인과 지사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3국정상과 경제단체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韓·日·中 기업인 모여 경제협력방안 논의

대한상의, 日서 비즈니스 서밋 개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협력키로

한국, 일본,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포용과 혁신을 주제로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공동으로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가 참석해 3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국 측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자열 LS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총괄사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 장쩡웨이 CCPIT 회장은 '포용적 성장과 혁신 성장 실현을 위한 협력'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상들에게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3국 경제단체들은 포용적 성장 협력 방안으로 한·일·중 FT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같은 자유무역 촉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김정은, 시진핑에 "긴밀한 전략적 협동" 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틀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뒤 전용기를 타고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을 마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서한을 보내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이 북중 간의 '전략적 협동'을 보다 긴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귀국길에 "우리를 따뜻이 맞이하고 성심성의로 환대하여 준 경애하는 습근평 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그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온 조중(북중) 친선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승화발전되고 있는 뜻깊은 역사적 시기에 진행된 나와 당신의 의의 깊은 상봉은 우리들 사이의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와 우의, 동지적 신뢰를 더더욱 증진시키고 조중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강화하며 조중 친선을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 나가는 중요한 동력으로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랴오닝성 다롄을 전격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허리통증' 성모병원서 진료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9일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에도 신병 치료를 위해 몇 차례 외부 병원을 찾았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지난 번 몇 차례 병원을 찾은 데 따른 연장선"이라며 "진료 경과를 보러 갔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